

善惡-倫理學的 研究 (十)

韓稚振

이럼으로 自己만 爲한다던지 他만 利케 한다는 主義는 오즉 理論뿐이요 事實은 아니다. 그러나 利害關係를 活動 立地에서 考察할 時에 個我的 道德說이 優勝하니 그는 비록 나를 썬나서는 利他도 못하고 利己도 못하는 까닭이다. 나를 爲하고 利케 하려면 그의 感情을 同感하여야 하나 그러나 眞正인 즉 他的 情을 내가 그대로 感치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意志는 다만 나의 情緒로만 動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個我是 萬事에 中心이 되어 잇는 것이다.

自己 犧牲 가튼 것도 調査해보면 비록 他를 純全히 爲한 듯하나 自己를 爲한 것도 事實인 것이 明白하여야지[진]다. 옛던 兵丁이 敵軍에게 捕虜되었을 때에 敵에게 羞恥스럽게 被殺되는 것보다 自己를 스스로 殺하는 것 가튼 것은 自己의 國民의 感性을 敵에게 뵈이려고 한 것도 事實일지나 쏘는 自己의 理想的 我를 爲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自己의 理想的 我란 別物이 아니라 自己의 周圍를 榮華롭게 하고 偉大케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爲하여 肉的 自我를 버린 것이다. 自我 犧牲이라는 것은 흔히 如此한 理想我를 保存키 爲하여 實行하는 것이다.

八

以上에 全章을 通하여 自我의 幸福은 그와 그의 環境의 幸福을 助長하기를 傾向하는 것이라야 道德的 價値가 有하다 하고 그 行動은 亦是 義務感을 隨伴케 된다 하였다. 不然이면 그 行動은 容納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이 普通的 幸福과 發展이 最善이며 이 最善은 個我和 衆我와의 幸福에 一致되는 때라야 可能하다 하였다. 그래서 善이란 것은 恒常 關係를 豫想하는 것이니 善이란 觀念은 무엇을 爲하여 善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善하다 하면 그 무엇이 하는 結果를 보아 制定하는 것이니, 假令 刀가 善하

다 하는 것은 그 刀의 目的인 切하는 것을 實行할 時에 名稱하는 것이며, 또한 누가 善하다 하는 것은 그이가 自己에 當한 일을 잘할 時에 號名하는 것이다.

그런데 善이란 것은 絶對的이라 할 수 업는 것이다. 卽 自己의 良心대로 行動하는 것이 善한 것이고, 그 良心은 生活 環境에 意志하여 形成된 個人的 民族的 習性이라 하는 것이다. 萬一 善을 絶對的 目的이 된다 하는 時에는 그것이 個我和 衆我的 利가 一致되는 其時이다. 그러나 이 絶對는 永久不變은 아니다. 그리고 各 個我的 立地로서 보면 善이란 觀念은 手段도 意味하고 目的도 意味하게 된다. 一個人에 限하여서는 그 善이 目的이 되나 그 目的은 他個我的 手段이 된다. 그러치만은 우리는 그 中에서 利害의 一致를 得할 수가 있다. 그는 各 個我が 集中的 生活을 하게 된 그들의 處地인 卍답이다. (了)